

# “한국 성문화·사회 변화 ‘선데이서울’에 고스란히”

〈1968~1991년 서울신문 주간지〉

## ‘해방 이후 한국의 성문화’ 연구하는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

“선데이서울에는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그 이면에 가려진 성(性)문화 등 변화하는 사회 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토드 헨리(42) 교수는 13일 오전에도 서울신문 자료열람실을 찾아 1970~80년대를 풍미한 서울신문의 인기 주간지 ‘선데이서울’을 뒤지고 또 뒤졌다. 지루한 장마와 불볕더위가 제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지난날 12월 이후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달째 열람실에 ‘출석’ 중이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헨리 교수는 “안식년을 맞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이화여자 한국여성연구원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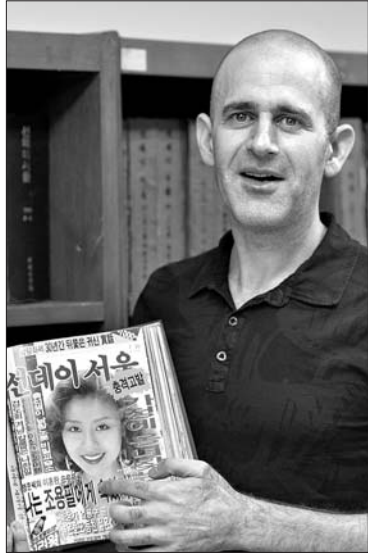
“제비족 천국 등 기사 재미있어 한양대·이대와 함께 프로젝트”

“학교학생 시절 韓에 공금증 유학와 일제강점기 역사 공부

요즘 같은 폭염엔 시원한 콩국수”

목은 ‘해방 이후 한국의 성문화’ 외 국인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연구다.

‘선데이서울’은 서울신문이 1968년 9월 창간해 연예계 소식뿐만 아니라 가려진 사회 이슈들까지 두루 다뤄 재미와 정보를 챙긴 국내 최초의 본격 오락 잡지다. 1991년 12월 휴간될 때까지 23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선데이서울은 1970~80년대



토드 헨리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교수가 13일 서울신문 자료열람실에서 1989년 7월 30일자 ‘선데이서울’ 표지를 장난감 펠렛 최경길씨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뒷얘기를 시시콜콜 다뤘기 때문에 한국의 성문

화와 사회상을 연구, 조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좋은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헨리 교수는 ‘별들의 고향과 내 마음속의 경이’ ‘행실 나쁜 아내와 막벌이꾼의 순정’ ‘제비족과 꽃벌들의 천국’ 등의 기사를 읽으면서 “재미있지 않나?”고 되묻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은 1993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대에서 시작했다. “당시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다 간사이대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죠.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게 됐는데,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걸 알게 된 후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끼며 자란 탓일까. 내친 김에 1999년 고려대 아학당에 입학해 ‘한국어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역사’를 공부했다. 직업 외교관의

꿈도 접었다. 이후 2006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 경성의 도시 공간’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콜로라도주립대에서 근대 동아시아사 교수로 재직하다 2009년부터 UCSD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는 한국 사람보다 더 진하게 ‘한국식’으로 산다. “요즘 같은 날씨엔 시원한 콩국수를 즐겨 먹는다”면서 “아마도 전생애에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을까 싶다”며 활짝 웃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K팝의 열기가 식어 버릴까 봐 누구보다 걱정하는 그다. “가수 싸이 열풍 덕분에 미국 내에서 한국학에 대한 교육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어요. 해외에서 한국학을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지역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글·사진 최해국 정보지원팀장 seaworld@seoul.co.kr

## 독립운동자금 모금 ‘여결 4인’ 박승일 선생 등에게 건국훈장

순국선열·애국지사 207명 포상

의학 견습생(박승일·당시 23)과 교사(이경양·당시 24), 은행원(김용복·당시 29), 전도사(김성식·당시 26) 등 하는 일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은 1910년대 말 항일 비밀결사의 동지였다. 일제의 서슬이 퍼렇던 1919년 11월, 평양을 근거로 활동하던 북장로과 애국부인회와 같이 애국부인회 통합된 대한 애국부인회 일원들이다. 일제 당국에 발각될 때까지 쌀 800여 가마를 살 수 있는 2400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다. 1920년 10월 검거된 이들은 20대 중후반, 가려진 여성으로 1~3년의 옥고를 치렀다. 대부분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2~3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북 지역 3·1운동의 진원지인 평양에서 항일 비밀결사를 알아낸 일제가 이후 독립운동 발생의 싹을 자르자 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제공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체포된 여결 4인(박승일·당시 23, 이경양·당시 24, 김용복·당시 29, 김성식·당시 26)의 1심 판결본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1921년 2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

‘여결 4인방’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207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 고 13일 밝혔다.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29명(독립장 1, 애국장 34, 애족장 94), 건국포장 30명, 대통령표창 48명이다. 이 중 여성은 7명이다. 중국 지린(吉林)성 엔지(延吉)에서 ‘여자 독립군’이란 칭호를 받은 장태화 선생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장 선생은 1924년 11월 독립운동 선전 문서를 배포하고 자금을 모집하다가 붙잡혀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처는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한 대한애국부인회 박승일 선생 등



세븐일레븐 제공 세븐일레븐의 한 직원(오른쪽)이 다위에 자친 할머니에게 생수를 나눠 주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충주로와 충주, 용산구의 홀몸노인 2500여명에게 생수 3만개를 지원했다.

### 본사손님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씨 신임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부산국악원장 서인화
- 농림축산식품부 ◇주재판 임용 △외교부 전출 박병홍△국감급 전 보△정책기획관 허태웅
-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통신시장조사과장 정영만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 박종석△단장△우편사업 이재홍 △예금사업 정진용△지방우정청 장△서울 김기택△경인 이상재△부산 이병철△충청 김영수△경북 홍만표

- 제주도 ◇승진△기획관리실장 오홍식△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전보△수출진흥관 허범률
-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산업2부장 양승진
- 국민대 ◇승진△홍보팀 선임실장 김법진△시설팀 실장 우용환△전보△대학원교직원 선임실장 문상규△생활협동조합 실장 이승휘 △정보기획팀 실장 백운환△국제팀 실장 구학모

##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 일대기 아베 등에 발송 일본아, 더이상 눈 감지 마라

“복을 많이 받아 잘 살라고 지어 주신 내 이름 석자, 그러나 이름은 어린 소녀와 여성의 존엄을 말살한 반인륜적 전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밝혀내는 역사에 굳게 새겨질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이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국내 최고령인 김복동(96·경남 통영시) 할머니의 증언과 일대기를 기록한 ‘나를 잊지 마세요’의 일어판을 아베 신조 총리와 하시모토 도부 오사카 시장 등 일본 정치·교육계 지도자들에게 10권씩 보냈다 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역사 교육 자료로 물려주기 위해 김 할머니를 여러 차례 방문, 직접 증언을 듣고 정리해 지난 3월 7일 90쪽의 책으로 발간한 ‘나를 잊지 마세요’ 한글판을 일본어로 엮어 낸 것이다.



고영진(왼쪽) 경남교육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13일 통영시 동호동 남양산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추모비 '정의비'에 김 할머니의 일대기인 '나를 잊지 마세요' 일본어판 책을 헌정하고 있다.

책에는 김 할머니가 22세이던 1939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1945년까지 7년에 걸쳐 강제로 위안부 일을 했던 생생한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할머니는 “몸서리쳐지는 일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했다.”며 “하루에 보통 10명이 넘는 군인들을 상대했으며 한 부대가 몰려오는 날엔 옷을 입거나 밥을 먹으시

기도 없었다. 기가 막히고 참피할 뿐이었다”고 증언했다. 할머니는 책에서도 “눈 감기 전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으면 이번 생애에서 여한이 없었다”고 썼다. 경남교육청은 일본어판 ‘나를 잊지 마세요’를 주일 한국교회와 한국교육원, 주일 대사관 및 교민단체, 유엔, 청와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관련 학교 등에도 보냈다. 일본에 800권, 유엔에 10권, 국내 기관에 150권을 발송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직접 참의원체국에서 국제특송(EMS)으로 책을 발송했다. 고 교육감은 발송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를 낭독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역사의 진상에 기초한 올바른 교육을 촉구했다. 글·사진 최해국 정보지원팀장 kws@seoul.co.kr

## 佛국제만화페스티벌에 ‘위안부 피해자 만화’ 전시 세상아, 우리는 눈 감지 못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여성 리더가 나서려 하는 목적도 있다.

13일 조운선 장관은 서울 중구 무교동 여가부 대화실에서 필리핀 라보 프랑수 앙글렘 시장, 니콜라 피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아시아 담당 디렉터 등과 만났다. 여가부가 한국만화가협회에 의뢰해 제작 중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육·홍보용 만화를 내년 1월에 열리는 앙글렘 국제만화페

스티벌에 출품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덜 알려진 유럽에 실상을 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 이러한 범죄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라보 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다”는 라보 시장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계

에 알리는 데 페스티벌 출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네 디렉터는 “이 문제야말로 이번 페스티벌 주제인 ‘세계 역사에 대한 증언으로서 만화가의 역할’과 잘 들어맞는다”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만화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유년시절부터 위안부 생활, 노후에 이르는 생애를 그린다. 을 11월까지 제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ssjin@seoul.co.kr

## 천연기념물 저어새, 영광 갯벌서 생존

국내 부화한 새끼 5마리 확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 센터는 지난 6월 전남 영광군 칠산도에서 부화한 저어새(사진·천연기념물 제205-1호) 새끼 5마리가 영광군 갯벌에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그동안 위치추적장치와 야생동물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저어새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왔다.

강정훈 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저어새 새끼 5마리가 부화한 칠산도에서 인근 육지의 갯벌까지 날아 10여km를 이동했다”면서 “국내에서 1~2마리가 아닌 5마리의 저어새 이동 경로가 한꺼번에 확

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천연기념물생태지도서비스’를 통해 저어새 이동 경로 분석 결과를 연말쯤 공개할 계획이다.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2700여 마리만 생존하고 있는 희귀한 새로 주로 해안이나 갯벌, 갈대밭에서 작은 물고기, 연체동물, 조개류 등을 먹고 산다. 오성도 기자 sdo@seoul.co.kr

## ‘재산 11조원’ 잡스 부인, 7세 연하男과 교제

상대는 펜터 前 워싱턴DC 시장 잡스 사망 3개월 뒤 관계 진전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의 부인인 로린 파월 잡스(왼쪽·49)가 7세 연하인 에이드리언 펜터(오른쪽·42) 전 워싱턴DC 시장과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 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휴스턴에서 열린 교육 관련 회의에서 처음 만났으며, 펜터 전 시장은 잡스가 사망한 지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로린 파월이 설립에 참여한 비영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칼리지 트랙’ 이사회에 합류했다.

펜터 전 시장은 15년간 부부 생활을 했던 부인과 지난 1월부터 별거

에 들어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참여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으나, 로린 파월이 펜터의 이혼 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린 파월은 2011년 11월 남편 잡스의 사망으로 약 11조원을 상속받아 단숨에 세계 부호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펜터는 현재 실리콘밸리 벤처 회사의 고문 및 강연가로 활동 중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英 성인소설 작가, 1년 만에 1060억원 수입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제임스, 세계 1위



‘엄마용 포르노’라 불리며 돌풍을 일으킨 3부작 성인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쓴 영국 작가 E.L. 제임스(사진·50)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가로 선정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제임스는 2012년 6월 이후 1년간 9500만 달러(약 1060억원)의 수입을 올려 미국 스티븐 킹 작가 제임스 패터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출간 8개월 만에 7000만부가 팔린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지난해 출간 직후 영화 판권 역시 500만 달러에 팔렸다. 작품의 판매량과 출판 부수, 업계 소식통들의 추산을 종합해

작가 수입 랭킹을 정하는 포브스는 “제임스의 소설이 전자책으로 판매되면서 독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에로틱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만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위 패터슨은 9100만 달러로 2위로 밀려났고 영화로도 제작된 ‘헝거 게임’을 쓴 미국 소설가 수전 콜린스는 55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베스트셀러 집계 1위를 휩쓴 ‘인페르노’의 작가 단 브라운은 2200만 달러로 수입 랭킹 9위에 올랐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GS칼텍스 “아동폭력 NO!” 여수서 ‘희망에너지 교실’

GS칼텍스 전남 여수공장이 13일 예울마루에서 여수 지역아동센터 10곳의 어린이 3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에너지교실 아동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했다. 오는 23일까지 4차례 펼쳐진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임직원 400여명으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 매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환경, 직업, 문화 예술 교육 및 비전 캠프 등을 진행하는 ‘희망에너지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 최충렬 기자 choijp@seoul.co.kr

## 17일부터 대한민국 정책컨센스

2013년 대한민국정책컨센스(조직위원장 김병준, 김진형, 남부원, 이갑산, 이만희, 정성현)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경기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거버넌스그룹의 제안으로 보수와 진보, 중도 진영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이번 정책컨센스에서는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양한 토론회와 전시회가 진행된다. 문의 (02)396-2252.

##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장광수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4일 장광수(56)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13일 밝혔다. 장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제청, 경제기획원, 체신부, 정보통신부를 거쳐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정보화전략실장 등을 지냈다.

